

이야기치료의 재저작 대화: 기독교상담을 위한 적용 방안

김 준*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이야기치료의 핵심 기술인 재저작 대화를 기독교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이야기치료를 기독교상담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 적용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이어서 재저작 대화가 이야기치료의 핵심임을 검증하며 관련된 이야기치료의 개념들을 기술하며 재저작 대화와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특히 재저작대화가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 Michael White의 대표적인 재저작 대화 사례 “라이엄 모자” 사례를 분석하며 고찰하였다. 이야기치료와 기독교상담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과 재저작 대화의 분석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를 위해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독교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내담자 문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내담자의 신앙 수준에 맞는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고, 넷째, 문제와 연관된 주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숙지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라이엄 모자의 사례”의 각 단계에 기독교적 적용의 예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관점의 재저작 대화가 내담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적 접근의 유의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접근의 효과를 경험적 연구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이야기치료, 기독교상담, 재저작 대화, 대안적이야기, 성경이야기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5일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I. 여는 글

이야기치료는 21세기 포스트모던시대의 심리치료를 대표하는 접근 중의 하나이다. 이야기치료는 원래 가족치료이론으로 소개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상담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야기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기독교상담이 이야기치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선희, 박지혜, 2018).

기독교상담과 연관하여 연구된 이야기치료는 주로 이야기치료의 세계관과 기독교상담의 메타내러티브와의 비교(노원석, 2008; 손철민, 2004; Hankle, 2016),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이야기치료의 특정 개념이나 상담기술들을 적용하는 연구(이재현, 2006; 최민수, 김정희, 2014), 그리고 특정 내담자들에 대한 이야기치료의 기독교적 적용 가능성(김미경, 2015; 박성주, 2012)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이야기치료와 관련한 연구에서 기독교상담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구조가 이야기라는 은유를 포함하고 있어 이야기치료와의 접목성과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러한 경향은 이야기치료를 기독교상담의 실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노력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야기치료가 주는 개념적, 실제적 적용의 유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기독교가 갖는 중심 메시지가 어떻게 이야기치료의 특정 기술과 접목하여 사용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사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야기치료의 대안적 이야기 작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지는 이야기의 재저작 대화가 어떻게 기독교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

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야기치료의 창시자 Michael White의 재저작 대화 사례를 분석하며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기독교적 적용은 내담자의 신앙적 수준, 상황, 특정 문제의 성격에 따라 창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실증적 연구들을 제안한다.

II. 펴는 글

1. 이야기치료의 기독교상담에의 적용

이야기치료를 고찰한 초창기의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주로 이야기치료가 갖는 세계관과 기독교상담의 가치를 비교하며 기독교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Hankle, 2016; Lee, 2004; Yarhouse & Sells, 2010). 그러나 점차 기독교상담의 저자들은 이야기치료의 세계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생성해내고 유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치료의 기독교적 적용의 한 형태로 연구되었다. 이재현(2015)은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효과와 방법에 주목을 하였다. 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이야기치료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담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교회라는 이야기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면서 기독교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관점의 이야기는 개인을 해방시키고 세상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 그는 한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잘못된 담론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신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미경(2015)과 박성주(2012)의 연구는 노년기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이야기치료를 적용하는 고찰을 하였다. 김미경(2015)은 노인 신자들의 비율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한 돌봄과 상담을 담당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자살 비율이 높은 노년기의 자살 예방을 위해 기독교상담 관점으로 이야기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치료의 특성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적용하는 여섯 가지의 방안을 제언을 하고 있다. 즉, 이야기치료의 대안적 이야기 구성, 의미 생성하기, 이야기의 재저작, 내러티브의 연결, 회원재구성, 반영 팀의 활용과 같은 기술적 특징들에 대하여 노년기의 기독교적 관점으로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구도 설정, 의미 되찾기,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통한 하나님과의 내러티브의 연결, 교회 공동체로 회원재구성, 협력적인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박성주(2012)는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상담의 개입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8회기에 걸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의 외재화, 독특한 결과 탐색, 재진술을 통한 대안적 이야기의 작성 등의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의 고찰을 위해 이 연구는 신앙고백성, 교회생활성, 사회생활성, 신앙성숙전체의 하위 척도를 가진 신앙성숙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모든 영역에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논의에서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치료가 신앙성숙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이야기치료의 프로그램이 노년기에 경험될 수 있는 다양한 불만에 대처하며 기독교신앙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상담과 달리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이야기치료가 노년기를 위한 기독교상담에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야기치료의 어떤 요인이 신앙성숙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고, 대신 질적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야기치료를 기독교상담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장 구체적인 접근은 이야기치료의 특정 기술을 기독교상담에 사용하는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재화와 전요섭(2012)은 이야기치료의 핵심기술인 상담자의 질문과 내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기독교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수님의 질문대화법’,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로서의 기독교상담’, ‘자전적 이야기 진술’의 3가지로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의 내면세계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인간이해에 대한 질문을 내담자에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법에 기초하여 기독교상담사는 자신을 보게 하고, 기독교적 이야기를 드러내는 ‘대안적 이야기’를 내담자와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의 과거와 연결하고, 과거의 경험과 새롭게 화해하는 ‘자전적 이야기 진술’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기독교상담의 저자들과 달리 최민수와 김정희(2014)는 이야기치료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여 기독교적 접근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이야기치료의 기술로서, 이들은 Michael White의 이야기치료 방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계설정(scaffolding)’의 개념과 기독교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비계설정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의 방식으로 이야기치료의 핵심 기술인 ‘외재화’, ‘입장대화’, ‘재저작 대화’, ‘회원재구성’ 대화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대화는 하위단계, 중간단계, 중간상위단계, 상위단계, 최상위단계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경험에 숨겨져 있는 미래의 선호하는 이야기와 가치, 의미, 목적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내담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동원하는 비계설정 대화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미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야기치료가 지향하는 내담자 중심의 선호하는 이야기를 경계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의 자기부정과 자기초월의 인식이 전제되고 대안적 이야기에서 구체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야기치료의 기독교적 적용을 위한 기존 연구들은 세계관과 철학적 접근,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이야기치료의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상담의 실체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야기치료의 특정 기술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에 머물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재저작 대화’라는 이야기치료의 핵심 기술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야기치료와 재저작 대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에 기초한 이야기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을 중요시 한다(고미영, 2012; 양유성, 2004). 이야기치료는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지배하고 이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룬다고 본다. 내담자의 이야기는 주로 실패, 덧없음, 절망, 무의미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엮여져 있다. 이야기치료의 치료방법은 현재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문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다. ‘재저작 대화(re-authoring conversation)’는 대안적 이야기로 불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핵심기술이다.

재저작 대화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질문과 답을 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치료의 목적인 대안적 이야기 구성의 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치료에서 사용되는 혁신적인 상담기술로 알려진 ‘외재화 기법(externalization)’, ‘회원재구성(Re-membering)’, ‘비계설정대화(scaffolding)’는 모두 재저작 대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재저작 대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선호하는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1) 재저작 대화와 관련된 개념과 기술

문제가 지배하는 이야기에 대항하는 대안적 이야기는 문제와 반대되는 긍정적 사건의 발견으로 시작한다. White(1990)는 이것을 ‘독특한 결과(unique outcome)’ 또는 ‘예외적 사건들(sparkling event)’로 불렀다. 예외적 사건은 대부분 내담자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건으로서 문제가 포화된 지배적인 이야기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경험들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기억에서 잊혀진 긍정적 경험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것을 ‘독특한 대화를 조명하는 대화’라고 White는 명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특한 결과가 대단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사건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상담사가 주 저자가 되기보다는 내담자가 주 저자가 되어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예외적인 사건을 질문과 답을 하는 대화를 통해 힘 있고 풍성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White(1990)는 대부분의 경우 예외적인 사건이나 독특한 결과는 기억 속에서 무시당하거나 소멸되어 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결과가 발견되어 상담사와 내담자의 대화 속에서 풍성하게 될 때 지배적인 이야기를 대항하는 대안

적 이야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White와 Morgan(2006: 29)은 독특한 결과를 풍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장말하기’ 대화를 제시한다. 입장말하기는 독특한 결과 정의하기, 독특한 결과의 영향 탐색하기, 독특한 결과 영향 평가하기, 평가의 근거 제시하기의 4 단계로 이루어진다. White(2010: 264-287)는 그의 상담 사례들 가운데, 내담자 피터가 소년원에서 화가 나는 사건을 경험할 때 평소와 같이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에서 빠져나와 체육관으로 향한 행동을 독특한 결과로 정의하고 이 행동이 주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특한 결과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이 행동을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로 피터가 정의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러한 예외적 행동이 가족, 가족관계, 학교와 교육, 인간관계와 친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한다. 영향의 탐색에 기초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그 행동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대화를 진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화과정을 통해 평범하게 보이는 긍정적인 사건이 내담자 피터의 부정적 이야기와 정체성에 대항하는 대안적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2) 회원재구성 대화

이야기는 사건과, 사건 속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화자를 포함하여 사건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White, 2010). 대안적 이야기를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내담자가 아는 사람들을 대화에 등장시켜 대안적 이야기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화를 유도하는 기술을 ‘회원재구성대화(re-membering conversation)’라고 한다(White & Morgan, 2006).

회원재구성 대화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 화자의 정체성이 내

면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또는 인간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미영, 2012). 여기에서 ‘회원’이란 내담자의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삶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구성이란 회원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지를 탐색하며 대안적 이야기 속의 중요한 인물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회원재구성 대화를 소개하면서 White(2010: 166)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에게 당했던 학대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40대 여성 제시카와의 회원재구성 대화를 예로 든다. 내담자인 제시카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확인시켜준 이웃집 아주머니를 언급한다. White는 이 아주머니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며 아주머니의 긍정적 행동의 이유와 제시카의 삶에 끼친 영향, 부정적 경험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경험과 의미, 그리고 제시카가 아주머니에 준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한 대화를 진행한다. 이웃집 아주머니를 그 대안적 이야기의 회원으로 초대하여 작은 긍정적 경험을 확대하고 풍성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과 대항하는 긍정적 정체성과 개인의 존재감, 희망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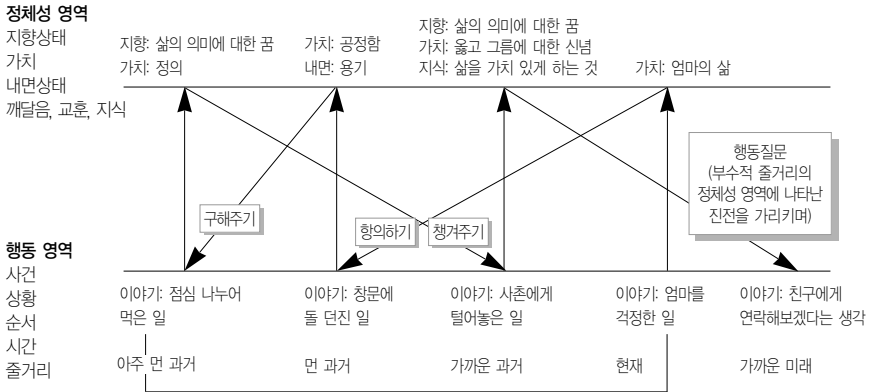
3) 재저작 대화의 두 영역

이와 같은 기술들을 재저작 대화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재저작 대화는 ‘행동 영역’과 ‘정체성 영역’을 교대로 거치며 진행된다. 행동 영역은 이야기의 줄거리나 주제를 이루는 사건들이다. 행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건과 연관된 상황, 시간, 사건의 순서, 줄거리가 있다. 이들은 이야기의 뼈대 또는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체성 영역은 행동 영역 속의 사건들의 의미와 지향하는 가치에 관한 것으로 지향 상태, 내면상태, 깨달음, 교훈, 지식 등을 포함한다. 사건들의 의미와 지향하는

가치는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White(1995)는 이것을 ‘정체성 영역’이라 명명하였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행동 영역과 정체성 영역을 풍성히 하고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사건을 풍성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들과 사건들의 주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해석하게 도와주면서 그 해석이 반영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내고 대안적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White, 1995).

재제작 대화의 실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White가 재제작 대화를 소개하며 사례로 사용한 ‘라이엄 모자의 이야기’이다. 그의 재제작 대화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행동 영역과 정체성 영역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White, 2010: 126-127). 화살표는 실제 상담에서 White와 라이엄과의 대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 시작은 현재 시제의 행동 영역에서 ‘엄마를 걱정한 일’에서 부터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White는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을 정의하는 질문, 이 행동이 갖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와 유사한 다른 사건을 찾는 질문들을 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돕고 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건들을 연결해내고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행동을 정의하고 이 행동이 의미하는 가치와 삶의 지향을 찾도록 하기 위해 지그재그 식으로 정체성 영역과 행동 영역을 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재저작 대화의 예(라이엄 이야기)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하는 것은 정체성 영역과 행동 영역의 내용들이 모두 현재 내담자 라이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주제와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될수록 주 호소문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화가 풍성해질수록 내담자의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는 뿌리를 내려 희망과 꿈의 주제가 더 힘을 얻고 원래의 ‘문제가 포화된 이야기’를 대항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된다.

4) 사례를 통해본 재저작 대화의 과정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재저작 대화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재저작 대화의 목표가 대안적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야기가 풍성하게 엮어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White, 1995). 또한 재저작 대화 과정은 다양한 행위와 정체성의 주제를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를 거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인다. 재저작 대화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를 기독교상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저작 대화의 구조와 과정을 잘 담고 있으며 White가 직접 상담을

한 ‘라이언 모자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재저작 대화를 분석하고 기독교적 적용의 가능성도 고찰한다.

White의 재저작 대화의 사례는 15세의 청소년 라이엄에 관한 것이다. 라이엄은 자살사고와 삶에 대한 의욕상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라이엄의 어머니는 그가 처음에는 상담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상담 대화중의 최소한의 대화 상대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 상담 사례를 통해, White는 존재에 대한 체념과 삶의 덧없음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삶에 희망을 품은 대안적 이야기의 작성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White의 재저작 대화는 현재 시제의 예외적 사건의 발견으로 시작된다. 라이엄과의 대화에서 White는 “엄마에 대해 걱정하는” 라이엄의 모습을 발견한다. 라이엄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반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위 질문과 정체성 질문을 번갈아 가며 던진다. 구체적으로 White는 4개의 정체성 질문과 10개의 행위 질문과 행위의 명명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림의 윗부분에 보이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예외적 사건들을 찾아내고 이 사건들이 주는 가치, 지향 상태, 의미, 교훈 등에 관해 묻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에 대해 걱정하는 라이엄에 대해 White는 “라이언이 자기 자신보다 엄마 걱정을 더 하고 있었는데요, 라이엄한테 무엇이 중요해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데 엄마를 걱정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어머니와 라이엄에게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엄마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대한 답을 한다. 정체성 질문을 통해 라이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나 자포자기와는 반대되는 가치인 엄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서 White는 “라이언이 무얼 소중히 했는지, 무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라며 또 다른 예외적인 사건을 찾는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며, 라이엄과 엄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창문에 돌을 던진 사건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예외적인 행동을 규정하기 위해 “그때 그 행동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라고 내담자들이 주도적으로 행동을 명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이러한 정체성 질문, 행위 질문, 명명 질문을 번갈아 질문을 할 때 라이엄의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는 점점 뿌리를 내리고 힘을 갖게 된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외적 사건과 행위의 강도의 변화, 그에 따른 정체성의 강화, 그리고 시제의 변화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행동 영역의 사건들은 엄마를 걱정한 일에서, 창문에 돌을 던진 일, 친구를 위해 점심을 나누는 일, 사촌을 챙겨주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일, 그리고 친구를 챙겨주기 위해 연락하기 등으로 더 구체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행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는 라이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체념과는 정반대되는 행동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사건들이 먼 과거에 일어난 것에서 가까운 과거 그리고 미래로 시점이 이동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된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정체성 질문 또한 라이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체성과는 반대되며 대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엄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다소 평범한 가치를 드러냈지만, 다음에는 공정함에 대한 지향과 내면의 용기를 드러내고, 삶의 의미에 대한 꿈과 정의를 지향하며, 마지막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꿈,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대화 속에서 나오고 있다. 특별히, 가까운 과거의 시점에서 사촌을 챙겨주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행위에 대한 세 번째의 의미부여는 앞의 두 정체성 영역이 부여해준 공정함, 용기, 삶의 의미에

대한 꿈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힘 있게 라이엄의 자신과 그의 희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라이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체념’과 ‘덧없음’과는 반대 방향의 지향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미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3. 재저작 대화의 기독교적 적용

1) 기독교적 적용의 방향

지금까지 고찰한 이야기치료에 대한 기존의 기독교상담의 제언들과 재저작 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의된 제언들과 특징들을 분석할 때, 재저작 대화의 기술적 유익들을 유지하며 기독교적 관점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방향은 아래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저작이 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야기치료는 기독교상담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것은 이야기라는 은유가 갖는 기독교와의 연결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상담 저자들은 이야기치료의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경계하며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Hankle, 2016; Lee, 2004). 포스트모니즘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Yarhouse & Sell, 2010).

이야기치료의 포스트모던 세계관은 재저작 대화의 방향에도 잘 드러난다. 문제에 대항하는 대안적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치료의 재저작 대화는 내담자의 선호하는 이야기(preferred story)를 추구한다(White, 1990). 새로운 이야기의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 내담자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내담자의 선호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세계관이나 행복관을 이루기 위한 것

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상담을 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 안의 어느 학파나 학자들을 넘어 이것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께 공유되어 온 것이다. 기독교상담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Gary Collins(1993: 21)는 “기독교상담은 헌신적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독교상담사가 그의 은사, 기술, 훈련, 지식과 통찰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전인적 성장, 영적 성숙, 대인관계의 능력, 정신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가 묻어나는 상담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Fuller심리대학원의 Siang-Yang Tan(2010: 363)은 기독교상담은 “그리스도중심, 성경에 기초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에 의해 행해지는 상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Crabb(1977: 20)은 기독교상담이 내담자의 필요와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야기치료를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사용하는 재저작 대화에서도 내담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준(2019)은 기독교적 관점의 이야기치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재저작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외적 결과”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치료의 대안적 이야기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담자의 정체성은 자기가 선호하는 이야기의 정체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됨을 주장한다.

둘째, 현재 내담자 문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의 이야기치료라고 해서 상담의 목표가 신앙의 성장과 신앙적 관점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독교상담은 이야기치료의 대

안적 이야기가 내담자의 가치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Lee, 2004).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이나 성경적 관점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집착할 때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상담의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재현(2015)의 이야기치료 연구는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되는 내담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고찰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회복되는 내담자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의 유익은 구체적으로 고찰되었으나, 원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진로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재저작 대화를 할 때, 기독교적 관점을 포함하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강조하는 임상적인 관점(*clinical perspective*)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이엄의 사례에서 그가 지향하는 용기, 정의에 대한 신념,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삶의 의미에 대한 꿈 등은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삶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엄의 무기력과 체념이 희망과 의욕적인 삶으로 변한 것과 함께,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담아내는 대화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도움을 주고 그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치료의 재저작 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저작 대화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잘 이해하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재저작 대화는 단순히 기술이라기보다는, 재저작 대화에 포함하고 있는 정체성과 사건과 행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독교적인 적용도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내담자의 신앙 수준에 맞는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야기치료에서 재저작 대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경험을 탐색하게 하는 효과적인 질문으로 진행된다. White는 재저작 대화를 진행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비계설정(scaffolding)을 소개하고 있다(White, 2010: 309-338). 비계설정은 내담자가 삶의 익숙한 영역에서 예외적 결과를 포함하는 긍정적 사건을 발견하여 단계적으로 대안적 이야기를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 비계설정은 예외적 결과를 설명하고 예외적 결과를 찾아 연결하기, 이 예외적 사건의 결과와 영향력을 탐색하고 깨달음과 배움을 반영하기,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그려보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내담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색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독교 관점의 재저작 대화도 신앙적 상상력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긍정적 자원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노원석, 2008). 그러나 기독교적 상상력은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독교상담사는 주의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신앙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적인 상상력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김번영, 2014).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식적인 방향보다는 교회생활과 같은 신앙의 경험에 대한 탐색을 하는 회원재구성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담자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의 인물을 초청하여 그들의 대안적 이야기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라이엄의 내면의 가치인 ‘용기’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을 한다면, 신앙의 삶 가운데 용기를 가장 격려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며,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앙인(예를 들면, 교역자, 교회 교사, 또는 교회 친구)을 이야기에 초대하여 그들의 기여와 영향력, 그리고 그들이 라이엄에게 거는 기대를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이야기가

더욱 분명하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담자는 문제와 연관된 성경적 주제들을 숙지해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의 이야기치료는 성경적 내용을 담은 이야기의 재저작을 지향한다(김변영, 2014; 오우성, 박민수, 2015). 그러므로 상담자는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들을 숙지하여 적절한 질문을 내담자에게 던질 때, 내담자는 상담사가 던지는 기독교적 관점을 탐색하는 질문을 받고 과거나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연관된 내용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면서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며 신앙적 관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를 위한 가능한 주제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기독교적 가치, 신앙생활의 경험과 연관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 수 있다.

아마도 내담자가 발견한 예외적인 사건이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연결시키는 것일 것이다. 내담자가 발견한 예외적 사건은 긍정적인 행동, 사람, 그리고 배경을 담고 있다. 상담사는 이러한 사건을 허락한 또는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함, 돌봄, 의로우심,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긍정적인 사건을 신앙적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라이언의 사례를 예로 들면, 라이엄이 추구하는 용기, 공정함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연결되는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라이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를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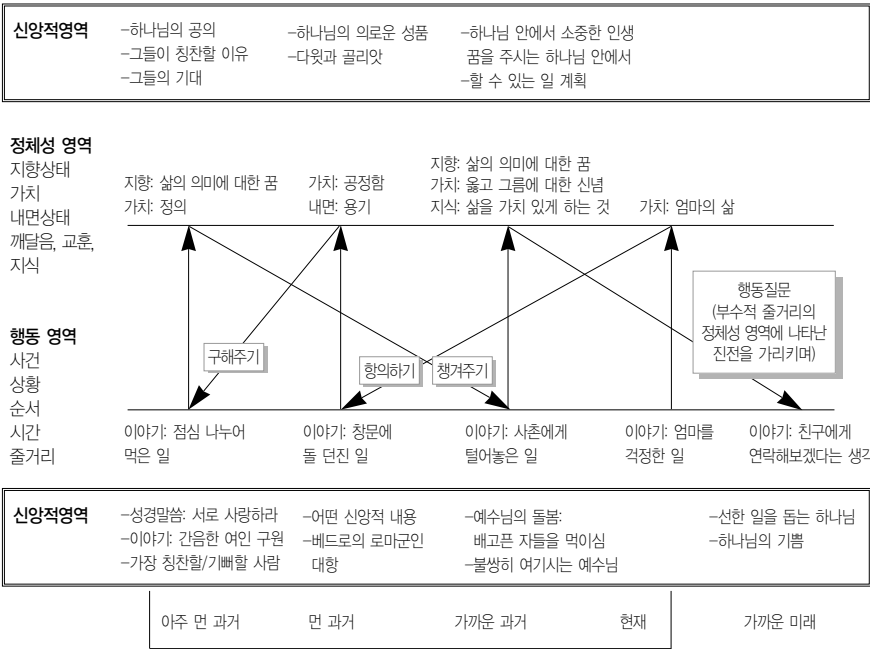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치료의 주제로 논의되곤 하였다(김변영, 2014). 성경의 이야기는 사건과 행동,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저작 대화의 영역인 정체성이나 행위 영역의 주제와 연관하여 자연스럽게 질

문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라이엄과의 재저작 대화의 경우 ‘용기’와 ‘공정함’과 연관된 성경 속의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는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라이엄은 이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언급할 수 있고, 이와 연결하여 상담자는 그 이야기에서 신앙과 관련하여 용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물어보며 기독교 안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라이엄이 어려운 친구와 점심을 나누어 먹은 일로 ‘정의’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담사는 “정의의 가치를 신앙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사건의 예가 있을까?”라고 성경 안에서 연관된 사건을 탐색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의라는 가치, 또는 라이엄이 보여준 돌봄의 행위와 연결할 수 있는 성경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내담자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풍성한 이야기로의 확장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성경에 대한 지식 정도를 상담사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라이엄 사례에 대한 기독교상담 적용의 실례

위에 논의된 라이엄의 사례 분석과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의 방향에 기초하여 라이엄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를 단계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례가 내담자 라이엄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재저작 대화의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이상적인 사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의 적용을 위해서 내담자 라이엄이 기독교인 것을 가정하였다. <그림 2>는 White의 재저작 대화과정에 기독교적 관점을 행동 영역과 정체성 영역에 각각 적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위와 아래의 ‘신앙적영역’의 박스가 각 단계에서 기독교적 적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 라이엄의 재저작대화와 기독교적 적용의 예

라이엄의 주 호소문제는 삶에 대한 체념과 무의미였다. White의 재저작 대화는 라이엄이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체념과 반대되는 삶에 대한 희망과 계획의 주제를 담은 대안적 이야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라이엄의 새로운 이야기는 공허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닌, 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건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어 현실에 뿌리를 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과정의 초점은 기독교적 관점 자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관점을 통해 라이엄의 긍정적 자원과 가치를 이해하고 라이엄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여 엮어가도록 기독교적 관점으로 도움을 주고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White가 성공적으로 시도한 재저작 대화의 흐름과 지향이 기독교적 관점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적용에서는

White가 시도한 틀을 유지한 채 여기에 가능한 기독교적 관점의 탐색과 대안적 이야기의 방향을 접목한다.

엄마를 걱정할 일(챙겨주기)과 엄마의 삶에 대한 가치: White는 라이엄이 가까운 과거에 라이엄의 주 호소문제와 반대되는 엄마를 걱정하며 챙겨주는 사건을 발견하고 이 행동의 의미로써 엄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를 부여한다.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라고 해서 꼭 기독교적인 사건으로 예외적 사건을 발견해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현실적이 문제와 연관된 예외적 사건을 발견하고 이 사건과 행동에 부여된 의미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창문에 돌 던진 일(항의하기): 재저작 대화의 작성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라이엄이 엄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뒷받침해 줄 유사한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머니를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구하기 위해 창문에 돌을 던진 것을 찾아내고 이를 ‘항의하기’로 규정하는 것은 라이엄이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보기 시작하게 만든다.

두 번째 예외적 사건을 발견하고 행동에 정의를 내리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의 이야기 작성에서도 중요한 시점이다. 기독교상담사는 이 부분에서 그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는지 그 동기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라이엄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과 유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엄은 아마도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로마 군인에게 대항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용기와 정의의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함과 용기의 가치: 라이엄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돌을 던진 행위는 그가 지향하는 가치인 공정함이나 내면의 용기에 기인한 것임을 나누게 된다. 여기에서도 기독교상담사는 이러한 공정함이나 정의감, 용기

등에 의미를 두는 것과 그의 신앙과 연관이 있는지 또한 이 신앙과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과 연결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른 긍정적인 연결을 탐색하는 질문을 할 때 어떤 기독교적인 경험을 탐색할 수도 있지만, 라이엄의 주 호소문제와 대응하는 긍정적 경험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 기독교적 관점은 어려운 친구와 점심을 나누어 먹는 일과 같은 실제적 경험을 찾는데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집중력 있고 정교한 개입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점심 나누어 먹은 일(구해주기): 라이엄의 과거에서 현재의 호소문제와 반대되는 중요한 긍정적 경험으로서 그의 선한 행동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사건이다. 그러므로 라이엄의 재저작 대화에서 이 부분이 '회원재구성'의 기술을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상담사는 이러한 선행과 용기를 신앙 안에서 가장 격려할 사람은 누구인지,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질문함으로 내담자에 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며 신앙 관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촌에게 털어놓은 일(챙겨주기): 라이엄은 다른 예외적인 사건으로 비슷한 상황의 사촌을 챙겨주었던 경험을 찾아내고 이 행동의 의미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된다. 기독교상담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촌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행동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연결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께 탐색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돌봄의 모습, 예수님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모습과 사건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 등을 함께 탐색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의미를 탐색할 수도 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꿈, 신념, 가치에 기초한 미래 행동 결심: 이야기치

료에서 대안적 이야기의 힘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라이엄의 무기력과 체념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결심하는 이 부분이 라이엄 모자와의 재저작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White는 지금까지 라이엄이 언급한 모든 예외적 사건들과 행동, 즉 ‘구해주는 행동’, ‘항의하는 행동’, ‘챙겨주는 행동’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꿈, 옹고 그림에 대한 신념, 삶에 대한 가치 등을 지향하는 라이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행동들과 신념들을 요약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를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꼭 붙들고 있었던 게 뭔지, 인생이란 것에 대해 네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정리되는지 말아야.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인생의 노하우를 갖고 살아간다면, 이런 지식의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될까? 이런 지식을 기초로 혹시 어떤 시도를 해본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White, 2010: 102)

기독교상담사는 위와 같은 대화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신앙적 관점의 탐색을 통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적이고 삶에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라이엄을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붙드시고 힘과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소중하게 살기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맺는 말

한국에서 이야기치료는 일반 상담심리 영역과 기독교상담 영역의 연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상담에 이야기치료가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로 포스트모던주의 세계관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을 다루는 초창기의 연구에서 최근의 경향은 이야기치료를 기독교상담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로 변화되는 흐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야기의 치료의 핵심 기술인 재저작 대화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의 사례에 기독교적 관점을 적용해 보았다.

이야기치료는 원래 어떤 정형화된 틀을 주장하기 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창의적인 대화와 상상을 통해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적용도 어떤 적용의 틀을 주장하기 보다는 신앙적 상상력과 경험을 탐색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재저작 대화의 기독교적 적용은 기존의 사례의 틀에 적용한 시도라서 창의성과 내담자의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는 이야기치료의 특정 기술이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정교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여를 한다고 여겨진다. 특별히, 기독교와 비기독교 일반 연구에서 이야기치료의 세부적 기술을 분석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이야기치료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이나 타당도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여인숙, 김춘경, 2007; 이가나, 이유미, 2013; 이다미,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이야기치료의 특정 기술의 과정을 분석하고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의 적용에 있어 임상적 목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즉 기독교적 주제의 탐색이 상담의 목표라기보다는, 기독교적 적용에서 사용한 White의 이야기치료적인 개입을 임상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 사례에 기독교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개입과 해결이라는 상담의 전문적 개입과 임상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야기치료가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적 관점의 재저작 대화를 사용하는 이야기치료가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이 이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다면 이야기치료와 관련된 기독교상담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미영 (2000). 이야기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111-136.
- 고미영 (2012). *이야기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록출판사.
- 김미경 (2015).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이야기 치료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41-68.
- 김준 (2019). 이야기치료와 기독교상담: 성경적 접근을 위한 제안, *총신대논총*, 38, 315-341.
- 김번영 (2007). *이야기치료와 상담*. 서울: 솔로몬.
- 노원석 (2008).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본 이야기치료. *성경과 상담*, 8, 142-156.
- 박성주 (2012). 노년기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개입.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51-84.
- 양유성 (2004). *이야기치료*. 서울: 학지사.
- 여인숙, 김춘경 (2007).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 회상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구성방법에 따른 효과 비교. *상담학연구*, 8(1), 199-228.
- 오우성, 박민수 (2015). *성경 이야기 상담 실습 가이드*. 서울: 시그마 프레스.
- 이가나, 김유미 (2013).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2(1), 33-48.
- 이다미 (201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의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1), 231-261.
- 이선혜 (2005). 내러티브접근의 자가평가모형 개발: 외현화 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2, 1-27.
- 이재화, 전요섭 (2012). 이야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18, 264-294.
- 이재현 (2015). 이야기치료와 기독교적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치료의 기독교적 적용. *장신논단*, 47(1), 259-287.
- 조현주 (2016). 이야기치료의 상담과정과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복지상담 교육연구*, 5(1), 173-203.
- 최민수, 김정희 (2014). 이야기치료에서의 비계설정 대화: 레브 비고스키의 비계 설정의 이야기치료적 적용.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79-304.
- Collins, G. R. (1993).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 helpers*.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Cook, R., & Alexander, I. (2008). *Conversations between Narrative therapy and Christian faith*. CreateSpace, North Charleston: SC.
- Crabb, L.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 Freedom, J., & Combs, G. (2009). 이야기치료: 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김유숙, 전영주, 정혜정 역, *Narrative 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1996년 출판).
- Hankle, D. D. (2016). Christian Worldview and the Use of Narrative Therapy in the Christian Counseling Setting. *The Journal of Christian Healing*, 32, 5–14.
- Lee, C. (2004). Agency and Purpose in Narrative Therapy: Questioning the Postmodern Rejection of Metanarrativ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3), 221–231.
- Morgan, A. (2003).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고미영 역, *What is Narrative Therapy?*). 서울: 청목출판사. (원전 2000년 출판).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4).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6th Ed. Allyn and Bacon. Boston.
- Nichols, M. P. (2011).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적용-제5판(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10년 출판).
-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White, M., & Epston, D.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W.W. Norton, New York.
- White, M. (1995). *Re-authoring lives: interviews and essays*. Adelaide: Dulwich Center Publication.
- White, M., & Morgan, A. (2010).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이야기치료(최민수 역, *Naara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Their Families*).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6년 출판).
- White, M. (2010). 이야기치료의 지도(이선희, 정슬기, 허남순 역, *Maps of Narrative Practice*). 서울: 학지사. (원전 2007년 출판).
- Yarhouse, M. A., & Sells, J. N. (2010). 기독교 가족치료(전요섭 역, *Family Therapies*). 서울: CLC. (원전 2008년 출판).

【 Abstract 】

Re-authoring Conversation of Narrative Therapy:
Sugges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Kim, Jun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 to apply re-authoring conversation of narrative therapy in the context of Christian counseling. To achieve this goal, it first reviews previous studies on Christian counseling's application of narrative therapy, and explores the possible ways to apply narrative therapy to Christian counseling. It then analyzes key concepts and therapeutic process of re-authoring conversation by investigating Michael White's "Liam's case," which may be considered one of the best examples of re-authoring conversation. Based on the reviews on current Christian counseling's approaches to narrative therapy and characteristics of re-authoring conversation, the study suggests four principles for using re-authoring convers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ontext; it should be consistent with christian worldview, needs to focus on client's problems in making an alternative narrative, should consider the level of client's Christian faith and biblical knowledge, and should master biblical themes related presenting problems. Guided by these principles, the study provides Christian perspectives on each step of re-authoring conversation, by employing biblical stories, God's attributes, and God's divine plan. Finally, it provides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discussed in the present study, which focuses on clinical intervention to solve presenting problems, and suggests empirical studies in future on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Key words: narrative therapy, Christian counseling, re-authoring conversation, alternative story, biblical narrative